

2001. 9. 1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비 고
925,675,634	884,566,667	41,108,967	기정 예산대비 4.6%증

2.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합 계	925,675,634	100.0	884,566,667	100.0	41,108,967	4.6	
국가부담수입	690,449,953	74.6	683,471,925	77.3	6,978,028	1.0	
-지방재정교부금	568,816,957	61.4	564,006,957	63.8	4,810,000	0.8	
-지방교육양여금	114,245,447	12.4	114,245,447	12.9	0	0.0	
-국고지원금	7,387,549	0.8	5,219,521	0.6	2,168,028	41.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85,388,893	9.2	85,394,042	9.6	△5,149	0.1	
-법정전입금	84,614,774	9.1	84,614,774	9.5	0	0.0	
-비법정전입금	774,119	0.1	779,268	0.1	△5,149	△0.7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16,861,788	12.6	115,494,700	13.1	1,367,088	1.2	
-재산수입	3,099,186	0.3	1,732,098	0.2	1,367,088	78.9	
-입학금및수업료	40,619,056	4.6	40,619,056	4.6	0	0.0	
-사용료및수수료	228,634	0.0	228,634	0.0	0	0.0	
-잡수입	4,064,879	0.5	4,064,879	0.5	0	0.0	
-이월금	68,850,033	7.8	68,850,033	7.8	0	0.0	
-지방교육채	32,769,000	3.6	0	0.0	32,769,000	-	
-지방교육채	32,769,000	3.6	0	0.0	32,769,000	-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206,000	0.0	206,000	0	0	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	206,000	0.0	206,000	0.0	0	0.0	
-기타지원금	0	-	0	-	0	-	

3. 세 출

(단위 : 천원, %)

관 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합 계	925,675,634	884,566,667	41,108,967	4.6	
유 치 원	3,125,212	3,125,212	0	0.0	
초 등 학 교	112,567,880	111,253,052	1,314,828	1.2	
중 학 교	76,038,434	72,678,460	3,359,974	4.6	
고 등 학 교	120,898,708	82,218,363	38,680,345	47.1	
특 수 학 교	10,217,822	10,217,822	0	0.0	
기 타 학 교	53,095	53,095	0	0.0	
평 생 교 육	1,859,739	1,859,739	0	0.0	
급 여 관 리	480,264,400	480,264,400	0	0.0	
복 지 · 후 생	66,930,654	66,930,654	0	0.0	
교 육 위 원 회	337,830	337,830	0	0.0	
교 육 청	7,346,941	7,312,501	34,440	0.5	
지 역 교 육 청	4,993,614	4,993,614	0	0.0	
교 육 지 원 기 관	7,814,668	7,743,768	70,900	0.9	
지 방 채 상 환	8,443,080	8,443,080	0	0.0	
제 지 출 금	67,370	67,370	0	0.0	
예 비 비	24,716,187	27,067,707	△2,351,520	△8.7	

I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8,845억 6,666만 7천원보다 4.6%증가(411억 896만 7천원)한 9,256억 7,563만 4천원임.

1. 세입예산의 재원별 부담으로

-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6,834억 7,192만 5천원보다 1.0%증가(69억 7,802만 8천원)한 6,904억 4,995만 3천원이며
- 지방비부담은 기정예산 2,010억 9,474만 2천원보다 17.0%증가(341억 3,093만 9천원)한 2,352억 2,568만 1천원임.

2. 자체세입예산은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0.1%감소(514만 9천원)한 853억 8,889만 3천원이고,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1.2%증가(13억 6,708만 8천원)한 1,168억 6,178만 8천원으로 이는 재산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78.9%증가(13억 6,708만 8천원)한데 기인함.

3.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증가(8,765만 2천원)한 1,137억 6,850만원임.

4.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보다 2.4%증가(60억 5,683만 9천원)한 2,563억 7,114만 1천원임.

5. 자본적 지출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4.2%증가(373억 1,599만 6천원)한 1,463억 4,969만 6천 원임.

6.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8.7%감소(23억 5,152만원)한 247억 8,355만 7천 원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제2회추경)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
계	925,675,634	884,566,667	41,108,967	4.6
인 건 비	384,402,680	384,402,680	0	0.0
물 건 비	113,768,560	113,680,908	87,652	0.1
경상이전비	256,371,141	250,314,302	6,056,839	2.4
자 본 지 출	146,349,696	109,033,700	37,315,996	34.2
예비비및기타	24,783,557	27,135,077	△2,351,520	△8.7

Ⅲ. 검토의견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45억 6,666만 7천원보다 4.6%증가(411억 896만 7천원)한 9,256억 7,563만 4천원의 규모로

세입은 추가로 내시된 국가부담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실업계고 특성화 내실화 등 투자예산과 교육활동지원, 교원연수 등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을 증액 계상요구한 바

세입, 세출 순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 입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411억 896만 7천원중
 - 국가부담수입이 69억 7,802만 8천원으로 17.0%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3억 6,708만 8천원으로 3.3%,
 - 지방교육채가 327억 6,9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지방교육채는 '99년도 및 2000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으로 938억 3,100만원, '99년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182억 4,900만원 등 1,120억 8,000만원이 발행된 상태이고,

금번 추경에 327억 6,900만원을 발행할 경우 총 기채액은 1,448억 4,900만원에 달해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채 년도	상환 예정 년도	이율	기채액	기채사유
기타차입금	1999	2007	5.25	43,250	·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
금융기관채	1999	2004	7.95	31,728	· "
소 계				74,978	
기타차입금	2000	2008	5.25	9,940	· '99통폐합학교교육여건개선비
	2000	2008	5.25	8,309	· 학교신설 시설사업비 부족
	2000	2008	5.25	18,853	· 교원명예퇴직 수당
소 계				37,102	
금융기관채	2001		7.95	32,769	· 교육여건 개선사업
합 계				144,849	

2. 세 출

-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 대한 문제점 사업을 보고 드리면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 고등학교는 2002학년 신학기(2002년 3월)부터
- 초중학교는 2003학년 신학기(2003년 3월)부터
-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 교육인적자원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하여
- 고등학교 교실 89실 증축에 71억 600만원,
- 고등학교 2개교 신설에 256억 6,796만 8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 그 재원 327억 69백만원을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후에 예산을 지원키로 약속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원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 지난 9월 10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 고등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 2001년 262학급 증설에 209억 6,000만원
 - 2002년 2개교 신설사업비 256억 6,300만원 등
 - 총 사업비 466억 2,300만원을 교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 '99년도와 2000년도에 교원정년단축과 명예퇴직에 따른 기채사업비 937억원('99년 749억 2000년 188억)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약속이 이행된 것은 지금까지 불과 36억여원에 불과한 바
- 이번에 또 327억원을 기채하여 집행 할 경우
 - 채무보증을 제외한 2000년말 국가채무가 119조 7,000억원 (중앙 100조 9,000억원, 지방 18조 8,000억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 금년도 수출이 5~6개월 감소되고 있고,
 - 2002년도 소득세 등 감세정책 시행,
 - 지난 9월 12일자 미국 뉴욕 등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한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침체전망
 -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내년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등 국내외 여건상 제대로 지원될지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교실증축 사업의 경우 날림, 졸속공사 문제입니다.

- 교실을 증축하려면 증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기간이 필요하고
- 기존시설의 안전진단, 현장조사, 설계용역, 발주, 착공, 준공, 동절기등을 감안할 때 6개월내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며

-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정당의 국회의원이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1,969개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교실 증축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이라고 답한 비율은 0.57%에 불과하였고, 2~3년 39.95%, 3~4년 28.19%, 1~2년 19.77%이었다고 지적하면서 6개월내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추궁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대로 6개월내 교실증축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기부족은 물론 “전문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여 한꺼번에 많은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독하기는 불가능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환경 침해 문제입니다.

- 학교시설은 교실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 양호실, 체육관, 강당, 실습실, 연습실, 기자재실, 운동장, 화단, 녹지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조화롭게 학생이나 교사가 활용되어야만 교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증축공간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교실증축사업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며
- 기자재수송, 공사관계자 출입 및 공사 시행시 방음, 방진 등 수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예방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학생 및 교사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대학입시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고교 3학년생 및 학부모들을 설득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넷째, 학교 안전문제입니다.

- 기존 학교 건물의 옥상이나 기존시설에 연결 증축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자재 사용에 따른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 기존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증축건물의 하중 증가로 인한 내구력 저하, 지반침하, 균열, 누수, 누전, 공해방지시설 파손 등 학교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음.

다섯째, 교원수급 및 기자재 대책

- 교실증축에 따른 담임교사의 추가 수요와 학급증설로 인한 과목별 시간 증가로 인한 “전공과목”이수 전문교사의 수급이 6개월내 가능한지
- 교실증축에 따른 각종 학습기자재의 추가 확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습기자재의 재배치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여섯째, 고등학교신설 문제입니다.

- 현재 계획하고 있는 2개교의 학교용지 입지 선정에 법률상 교육 환경상 문제가 없는지, 학교용지 지정 등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2개교 모두 30학급으로 시설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정서를 고려하기 보다는 우선 짓고 보자는 것으로 이보다는 학교설계부터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수준의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㉔